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26회, 비유와 열 명의 나병환자, 루가복음 16:19-17:1

9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6, 비유와 열 명의 나병 환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17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Biblica e-learning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보셨듯이, 우리는 두 가지 어려운 구절을 다루었습니다. 슈팅 매니저의 비유 중 하나는 많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TJ가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친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에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주제가 공관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신 후, 예수님은 16장 19절로 넘어가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대하고 계시고, 이 그림 속에서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강의에서 바리새인들과의 토론을 시작할 때, 저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비난을 상기시켜 드렸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매우 이례적인 비난입니다.

16~19절을 읽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비유가 그 주제에 대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19절, 보라색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사스럽게 잔치를 벌이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 앞에는 톱으로 덮인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마구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싶어했습니다.

더욱이 개들도 와서 그의 톱을 핥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죽어서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의 곁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리고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그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을 물에 담그고 제 혀를 식히십시오. 저는 이 불꽃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만나에서와 같이 나쁜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당신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사이에, 이 모든 것 사이에, 이 모든 것 사이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당신에게 건너가고자 하는 자들이 할 수 없고, 아무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제게는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도 이 고통의 장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그들 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 아버지 아브라함 , 그러나 누군가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 누군가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앞서 모세와 선지자들에 대해 언급했고, 루크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율법과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방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한다면, 유대인 경전의 전체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두 인물을 보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복음의 강조점, 즉 버림받은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살펴보라고 도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언어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자선에 관한 바리새인의 평등성에 반대하는 주장이 전면에서 제기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 전통의 특정 측면을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고, 유대인 관습의 관습을 따르기 위해 모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따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선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세 번째인 금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건함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 가지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정상에서 군중에게 율법의 재해석에 대해 말씀하셨고,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들의 경건함의 세 가지 문제, 즉 기도, 금식, 자선을 다루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제와 경건함에 대한 그들의 감수성을 되뇌셨고, 그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시면서 매우 흥미로운 전개가 발견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서 식사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집 환경을 알고 계셨고 이 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그들이 사치스럽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여기의 호사와 1614년의 교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예수께서 매우 불편한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맥락에서 집 문의 이미지와 보라색 옷을

입은 부자의 왕복,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나사로가 벌거벗었음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하데스와 아브라함 보스턴 사이의 심연 이미지도 발견할 수 있는데, 제발, 그 이미지를 너무 확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강조하려고 하는 비유적 기능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궁핍한 사람들은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 비교를 하면서, 특히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누가복음에 대한 교실 강의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지만, 여러분이 읽고 보고, 예수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평행선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구성 했는지 다시 한 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정리한 방식대로라면, 예수님은 부자의 습관의 호사를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할 필요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누가 복음을 받을 사람은 사회의 엘리트인 데오필로 경이며, 그 편지는 데오필로에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음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전하고자 하는 엘리트가 쓴 것입니다. 그는 부자인 보라색과 아마포 옷을 입었지만, 가난한 사람인 나사로의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부자는 호사스럽게 잔치를 벌였지만 가난한 사람 편은 아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했다. 그는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 이 진술 직후에 그들의 출발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라.

부자가 나사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사로를 돌보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히려 그의 상처를 핥으러 오는 그의 개들이고 그의 상처에서 먹이를 먹으러 오는 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는 죽어서 하데스에 매장되었지만, 나사로에 대해 사용된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고, 그것은 거의 왕족의 대접이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사로를 돌보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히려 그의 상처를 핥으러 오는 그의 개들, 그의 상처에서 먹이를 얻으러 오는 그의 개들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자는 죽어서 하데스에 매장되었지만, 나사로에 대해 사용된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고, 거의 왕족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과 나사르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저승에서 자비를 구했지만, 보시다시피 그는 너무 교만했고, 그 상황에서도 본문을 보시고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면, 그는 너무 교만해서 나사르가 아버지 아브라함 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르가 멸시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가난한 사람에게 제 명령을 따르라고 지시해 달라고 부탁했고, 물을 좀 가져와서 제 혀에 적셔서 제 갈증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셨을 때 부자의 오만함에 대해 말해줄 것입니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 이 새가 와서 저를 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제가 상기시켜 드리죠, 당신은 살아 있는 동안 좋은 것들을 받을 것이지만, 당신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는 악한 것들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사르,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바리새인이라면,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주변의 왕족이 되고 싶어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 즉 율법과 모세가 제공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들이 소외시킨 가난한 사람, 심지어 더러운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을 사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절망적이고, 원치 않는 사람으로 상징될 사람, 식탁에서 직접 먹을 자격이 없고, 심지어 음식을 건네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편안한 자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는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련된 하나님의 왕국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3명을 위한 스티커 노트라고 부르는 것.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지상에 있는 동안 자비를 구하지만 자비를 얻지 못하고 개들이 핥게 할 뿐이지만, 자비를 베풀 수 없었던 부자는 자비를 구하고, 저승에서도 자비를 구할 것입니다. 다가올 왕국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곳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적 보복을 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위한 다른 스티커 노트는 하나님과 버림받은 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이 오히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행복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편에 설 자격이 있으며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제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다루고 있는 세 번째 스티커 노트는 심판의 동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는 방식이 보복적 정의를 만날 것이고, 성경에 따라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갈증이 있을 것이고,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비를 부르짖겠지만, 그 자비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심지어 그들이 뒤에 남겨둔 사람들조차도 좋은 소식을 듣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위치를 고려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경건함의 의미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지고, 자선을 베푸는 데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자선에 있어서 안전한 경건함을 묻고,

핵심을 짚고, 그들이 누구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잠시 멈추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프리카 유산에 빛을 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스니아에서 전쟁 직후에 본 아이들의 얼굴, 오시예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그저 저녁을 먹기 위해 먹는 독일산 냉동 피자를 함께 먹었던 아이들의 얼굴에 빛을 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제적 지위, 신체적 상태, 건강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모든 낙인, 그리고 그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셨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부르십니다. 첫째,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둘째, 우리에게.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전쟁의 결과로 빈곤으로 전락한 부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령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사회가 그들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그들을 위해 왔다고 말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관대함과 친절의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임을 보여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우화에서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에 대해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들은 자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선택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들의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조차도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 생각했던 것처럼 페데 아브라함과 함께 행복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대화와 시선과 담화를 옮겨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와 15장 사이, 15장 이후, 그리고 여기 이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마치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예수께서 돌아서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순서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7장부터 시작하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문제를 직접 다루라고 하셨고, 그것에 대해 17절 1절로 넘어가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멧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그에게 나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십시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책망하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가 하루에 일곱 번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너를 대하며 내가 회개한다 하면 너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

5절에서 사도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드렸고, 주님은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진 이 뿔나무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왔을 때, 곧 와서 식탁에 앉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가 나에게 저녁을 준비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내가 먹고 마실 때 시종들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야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이다.

하인이 명령받은 대로 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명령받은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제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전환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이 바리새인들을 다루었고 나사로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룹, 즉 작은 사람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중 누구든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왕국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사람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 이 구절에서 강조될 세 가지 주제를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는 주의 사항입니다.

예수께서 걸림돌이 될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내리셨는데, 그가 사용한 단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스캔들과 같았고, 그런 다음 용서에 대해 언급하고 용서에서 형제애에서의 용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믿음이 조금만 있다면 어떻게든 움직이는 나무를 결합할 수 있고 그 비유를 살펴보세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 말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왜 이것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제 말은, 그분은 당신이 그 나무를 결합할 수 있고, 그 나무가 가서 바다에 정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다일까요? 그리고 네 번째 것을 더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팀을 강조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기능 장애가 태도인 정신을 강조하겠습니다.

태도. 예수는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내가 여기서 강조한 네 가지 핵심 선언을 언급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석을 읽을 때 주석가들은 이 모든 구절이 너무 단절되어 있고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것 입니다 . 하지만 이 강의에서 제가 하려는 것은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일어나고 있는 연관성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무리 속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때때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다가오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서서 때때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이 분야에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에 스캔들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분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유혹, 함정, 충격적인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지만,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을 분열시키거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보다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군가의 길을 가로막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도전하시고, 그 다음은 형제애의 개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은 서로를 해칠 것이고, 서로를 불쾌하게 할 것이고, 서로에게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각하고 그룹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부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저승에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매우 교만했고, 그 상황에서도, 본문을 보고 제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면, 그는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 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폄하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불쌍한 사람에게 제 명령을 따르라고 지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내 혀에 적셔서 갈증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셨을 때 부자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부자는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이 새가 와서 저를 구해 주세요.

아브라함 신부는 말했습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당신은 살아 있는 동안 좋은 것을 받을 것이지만, 당신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는 악한 것을 받았지만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사로와 아브라함 신부는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신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따라야 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바리새인이라면, 예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지역의 왕족이 되고 싶어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과 모세가 무엇을 제공하느냐.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소외되었다. 더러운 개조차도 그의 상처를 핥을 사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희망 없는 자, 원치 않는 자로 상징되는 사람. 식탁에서 직접 먹을 자격이 없고, 음식을 건네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버지 곁에서 편안한 자리를 찾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관련된 하나님 왕국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3명을 위한 스티커 노트라고 부르는 것. 예수께서 여기서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지상에 있는 동안 자비를 구하지만 자비를 구하지 않고 개들이 핥게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 수 없었던 부자는 저승에서 자비를 구합니다. 다가올 왕국에서, 왕국에서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적 정의를 받을 것입니다. 원한다면 징벌적 보복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위한 다른 스티커 노트에서, 당신은 하나님과 버림받은 자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이 오히려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합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세 번째 스티커 노트는 심판의 동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는 방식은 보복적 정의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할 것이고,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비를 간청할 것이지만, 그 자비는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겨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의 위치를 고려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을 만한 사람으로 여길 때입니다.

그들이 자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경건함의 의미에서 그들을 합당하다고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선에 있어서 안전한 경건함을 위해 질문하셨습니다. 핵심을 짚고, 그들이 누구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유산에 빛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스니아 전쟁 직후에 얼굴을 본 그 아이들에게 빛을 졌습니다.

오시예크에서 본 그 얼굴들. 그들과 시간을 보냈고, 독일에서 온 냉동 피자를 먹었는데, 우리는 그저 저녁을 먹기 위해 먹었다. 예수가 그들을 위해 왔다는 걸 상기시켜 준다 .

하나님의 왕국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 상태를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낙인을 찍고 그들을 합당하지 않다고 규정할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시는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부르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전쟁으로 인해 빈곤으로 전락한 부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사회가 그들을 잊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그들을 위해 왔다고 말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관대함과 친절의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도전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선에 있어서 선택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 그들의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사람조차도 Fede Abraham과 함께 행복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대화와 시선과 담화를 옮겨 제자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와 1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15장부터 여기부터 앞으로.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고 예수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과의 대화를 마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그는 돌아서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17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문제를 직접 다루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로 돌아갑니다. 17절 1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그에게 나을 것이다.

너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어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가 하루에 일곱 번이나 당신에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당신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5절. 사도들은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왔을 때, 곧 와서 식탁에 앉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그에게, 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내가 먹고 마실 때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가 명령받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일곱으로 돌아섰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합당하지 못한 종이라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이 바리새인들을 다루었고, 나사로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룹, 즉 작은 사람들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구라도 왕국을 받는 데 있어 하찮은 자들을 방해한다면, 그 사람은 파괴적인 결과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예수님. 이 구절에서 강조될 세 가지 주제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여기서 지적하는 주의입니다. 예수는 걸림돌이 될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를 주거나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스캔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용서에서 그는 형제애에서의 용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것을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조금만 있다면 어떻게든 움직이는 나무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화를 보세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 말은, 그분은 당신이 그 나무를 명령하면 그 나무가 가서 바다에 정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다인가? 그런 다음, 직접적으로 주제로 강조하지 않을 네 번째 주제를 추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가 기능하는 영은 태도입니다. 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고 여기서 강조하는 네 가지 핵심 선언을 다루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주석을 읽을 때, 주석가들은 이 모든 구절들이 너무 단절되어 있고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강의에서 하려는 것은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일어나는 연관성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중 속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제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걸고, 그런 다음 돌아서서, 때때로 제자들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분야에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예수는 스캔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가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유혹, 함정,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분열시키거나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해하도록 도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군가의 길을 가로막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형제애의 개념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불쾌하게 하고, 서로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각하고 그룹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도전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앞서 언급한 믿음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많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왕국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적은 양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의 요구 사항은 이런 태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멤버들이 형제 자매인 곳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잘못 대하는 곳. 그리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록 신을 믿는 진정한 신앙심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섬기는 동안, 그는 제자들에게 그저 자신의 일을 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11절로 넘어가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용서에 대해 논하는 방식. 다시 말하지만, 제가 교실에 있을 때, 제가 용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잠시 멈추고 학생들에게 예수와 이혼과 같은 문제에 대한 원칙을 탐구하라고 요청할 때, 그리고 예수와 용서, 기도, 자선, 결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용서에 대해 잠시 멈추고 예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형제애의 틀에 틀을 세우셨습니다. 형제가 당신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내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쾌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가 사용한 언어를 주목하세요. 죄는 사회적 용어입니다.

죄는 유럽에서 세뇌당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추상적인 신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죄는 사회적 용어입니다. 죄를 지은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공동체의 신성한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형제에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형제나 자매 사이에 품위 있고 명예로운 관계로 여겨지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나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입혔거나 형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원리를 주목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누가의 기록에서, 누가는 형제를 화나게 한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회개는 이 대화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언어입니다.

회개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범인은 돌아서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나쁜 습관과 정반대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JW McGarvey는 회개를 정의합니다. 제가 이 강의 시리즈에서 앞서 말했듯이, 저는 믿거나 말거나, 1990년에 학생 시절에 JW McGarvey의 사도행전 주석을 읽었을 때 이 정의를 외웠습니다. 그는 회개가 죄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 생기는 의지의 변화이며,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가 훌륭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저는 그 정의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개가 수반하는 바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나 자매를 화나게 할 때, 당신은 모든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죄의 원인, 당신이 일으킨 잘못에 대해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즉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인 이유입니다. 누가는 회개가 없을 때 죄가 없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용서란 없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와 회개할 때 꾸지람을 듣고, 그런 다음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범법자를 꾸지람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중을 환호하게 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목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의 목사인 한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에 대해 말해야 할 때조차 그의 이를 뽑기 위해 드라이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친구 여러분, 상기시켜드리자면,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많은 실수와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상기시킨다면, 형제애와 형제 자매들의 복지를 위해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형제에게 다가가 회개의 결백을 보여주고 나의 사악한 길을 멈추는 은혜를 구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응집력에 좋은 일이 아닐까요? 설교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싶어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기독교 클럽을 운영하고 싶어하는지,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에게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꾸짖고 회개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잠깐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같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고통이나 상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사과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고도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고통을 놓아주는 것이고, 그 상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품고 더 이상 참지 않으면 그 분노는 비통함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는 모든 것 중에서,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용서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당신을 계속 화나게 하고 당신의 남은 인생 동안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해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용서와 화해의 같은 차이는 용서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놓아줍니다.

화해는 당신이 화나게 한 사람이나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용서는 항상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모든 화해 모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실제로 회개하고 당신에게 매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을 멈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어떤 공간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 성포식자처럼 당신을 다시 해칠 것입니다.

당신이 화해하지 않는 자들, 하지만 용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애에서 원칙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라. 누가복음에서 용서는 회개에 달려 있다. 지름길은 없다.

루크는 내가 많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그게 불편해요. 목사님들은 회중에게 누군가에게 무슨 짓을 하든 옷장에 가서 신과 합의하고 그냥 당신의 길을 가라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합의할 때, 당신이 잘못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을 뒤에 남겨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누가복음에서 그 사람은 형제입니다.

공동체에서 당신은 회개해야 하고, 그 상호성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용서가 일어나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불쾌하게 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7장 11절.

루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몇몇 나병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루크는 우리가 잊었을 경우를 대비해 예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는 열 명의 나병환자를 만났다. 그는 그들을 보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그들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서서 예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은 누구냐? 이 외국인 외에는 돌아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네 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이 구절에서 감사나 고마움을 말할 때 저는 비즈니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감사가 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에 당신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 치유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에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제안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병환자를 다루셨습니다. 나병은 매우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나병환자는 항상 마을 밖에 남겨져 회복될 때까지 마을 밖에 머물렀습니다. 회복되면 일반적으로 사제에게 자신을 보이고, 사제는 그들이 깨끗해지면 의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원하신다면 현대적 언어를 사용해 봅시다. 피부 질환의 모든 형태를 지칭하는 나병에 걸리면 격리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기록하고 있으므로 격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격리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우, 당신은 피부병으로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 마을 밖에서 격리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오면, 당신은 사제에게 가고, 사제가 사회에 재진입하기 위해 정화하기 위해 마련할 의식 중 일부는 기본적으로 약초를 물에 넣고, 어떻게 부르나요,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거기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떻게 부르나요, 당신에게 있는 감염과 그 모든 것이 사회에 전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빠르게 강조하겠습니다. 이 나병환자들의 지리적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 그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나병환자로서 만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쪽에서 올 것이고, 아홉 명은 유대인 쪽에서 올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사마리아 쪽에서 올 것입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두 곳 사이의 경계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캠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병환자는 법에 따라 진을 쳐야 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구원의 선언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강조하기 전에, 이 나병환자에 대한

중심적인 문제가 더 많은 것을 보기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곧 화면에서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이 나병환자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대인 쪽에서 9명, 사마리아 쪽에서 1명, 총 10명의 나병환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즉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이라고 했고, 거의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이 나병환자들에게 나가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 내가 당신이 믿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내가 앞서 보여드린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지 마세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말했습니다. 아야! 이제 기억났어요.

나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요. 반면에, 내가 당신이 상상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여라.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아홉 명의 유대인은 유대인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원한다면 치유에 의한 억압이라고 부르세요. 그들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제사장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아마 치유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할지 말지에 대한 반응은 모릅니다. 또는 돌아올지 말지. 하지만 아이디어는 열 명이 함께 있었고 한 명이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의 아이디어는 가장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 중의 버림받은 자,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고 감사를 표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 사마리아인 나병환자를 위한 복음에 대한 누가의 강조점에서, 모든 나병환자가 버림받았다면, 사마리아인은 버림받은 자 중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께로 돌아올 필요성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와서 예수의 메시아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예수는 이 위대한 선언을 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는 치료적 의미와 종말론적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소조 라는 것을 ,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지금 당신을 치유했다고 말해야 하며, 당신은 치유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아마도 당신의 믿음이 당신에게 왕국에 들어갈 기회를 주었고, 이제 당신은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것처럼 종말론적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종말론적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보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께서 누가복음 16장과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나사로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의 위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의 위장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오늘의 이 위대한 선언을 받는 사람이 되는 버림받은 자의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언급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인자의 오심이 진짜, 진짜 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부른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대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우리 공간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저는 신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그가 보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그가 보는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특정 시리즈에서 저는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강의에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측면인 용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자세와 참된 회개를 개발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참된 가족을 위해 원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구체화하는 공동체에서 살고 싶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을 빠르게 하시기를. 어쩌면 용서의 손길로,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어딘가에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나병환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처럼 구원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과 영원토록.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것은 세션 번호 26, 비유와 열 명의 나병 환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17장 19절까지입니다.